

주일의 말씀

## 하느님 때문에 조금 더 망한들 어떠랴!



이종하 스테파노 신부  
송현성당 주임

어느 신부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시골본당에 살 때입니다. 사제관이 낡아서 비만 오면 천장이 줄줄 새어서 고생을 했는데, 장마철이 되어 며칠 동안 밤새도록 빗물 받아내느라고 잠을 설친 끝에 용기를 내어 본당의 유일한 재력이었던 본당회장님에게 사제관을 새로 지어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회장님은 건축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망한 상태였지요. 난색을 보이자, 하도 답답해서 그냥 해본 소리니 잊어버리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회장님은 본당신부의 청을 거절하고 난 뒤,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망했는데, 하느님 때문에 조금 더 망한들 어떠랴!” 그래서 회장님은 여기 저기 돈을 빌려서 직접 사제관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느님께서 그 회장님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이 년 만에 전성기 때만큼 일어섰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사도들이 고기잡이하러 나섭니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들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발현을 두 번이나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던 때에 그들 앞에서 일으켰던 꼭 같은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심으로써 당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심과 동시에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

다는 당신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하게 될 ‘사람 낚는 일’ 곧 사목활동의 성공은 혈기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에 대한 철저한 사랑에 달려있음을 깨우치게 해 주십니다. 당신의 양떼를 치도록 맡기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시골본당의 그 회장님은 당신 혈기로 사업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갖게 되자, 하느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회장님은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삶을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밤새도록 헛되이 그물질을 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으로써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육신을 주실 때에는 그저 동물들처럼 본능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삶은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과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누구나 가장 충만하고 고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요한 21,13

사도 5,27-32,40-41 묵시 5,11-14 요한 21,1-19

## 성모당이 궁금해요. 1

교구 사목국

대구교구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한 성모당, 성모당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교**구 설정 99주년인 이 4월에, 성모당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09년 6월 29일 당시 조선교구장

이었던 뫼텔 주교님이 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날은 현 계산주교좌성당의 종을 축성하는 날이었습니다. 250Kg의 새 종이 종각에 올려져 축복되었고 그날 오후 뫼텔 주교님은 서상돈 회장과 함께 지금의 교구청 자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서상돈 회장은 그 땅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1911년 4월 8일 대구대목구를 설정하고, 초대감목으로 드망즈 주교를 임명하셨습니다. 드망즈 주교님은 「신뢰하고 일하라 (Confide et Labora)」를 사목 지표로 세우시고 6월 26일 대구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망즈 주교는 대구본당(현 계산주교좌성당)에서 7월 2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현재 5월 31일)을 지내면서 루르드의 성모님을 교구 주보로 정하시고 세가지를 허원하셨습니다. 첫째가, 주교 및 선교사제들이 거처할 집, 둘째가 신학교의 건축, 셋째가

주교좌성당 증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돌보아 주신다면, 주교관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루르드’의 성모굴과 가능한 비슷한 굴을 마련하고 신자들이 순례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허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상돈 회장은 주교님께 7월 5일 주교관과 수녀원 부지로 땅의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교님은 성모당을 지을 위치를 결정하고, 1912년 3월 10일에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주교님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주교관이 건설되기로 예정된 대지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인공의 작은 언덕을 매입했다. 나는 그 언덕의 부지 위에 동굴을 만들려고 한다.” 이로써 대구 읍성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성모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님은 교구의 기초를 닦는데 있어, 어떤 일보다도 성모당의 자리를 잡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후 1912년 12월 7일 서상돈 회장이 8,834평의 땅을 교구에 기증하였고, 성모당이 들어설 땅 옆에 주교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당은 우리 대구교구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당을 방문하실 때마다 드망즈 주교님의 흉상도 한번 보시고 교구의 시작과 함께 한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다음 주보에 계속...)

### 말씀을 잘 들어야만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부활 제3주일

입당성가

137 부활하신 주 예수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서 와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네. 알렐루야.

파견성가

132 감사의 송가를

영성의 향기

:: 신앙의 눈, 믿음의 눈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고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자기의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꺾이나 받아 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고 현실에 동떨어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나약하게 보이는 예수가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수 친히 뽑으셨고 예수와 함께 매일 살았고 특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분을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제야 자기 스승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을 볼 때까지는 우직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신뢰 이상입니다. 믿음은 감춰져 있는 것 까지도 보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느님의 창조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발명품들이 짝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세상의 사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은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근심을 덜어주는 나무 이야기



남자는 작년 홍수로 무너진 창고를 고치기 위해 일꾼을 불렀습니다. 그 중 한 목수는 그날따라 실수를 연발했고, 집에 가는 모습조차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지친 목수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노라고 남자는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목수는 자신의 집에 들렀다 갈 것을 권했고 정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수는 어떤 나무 앞에 서더니 그 나무 가지 끝에 소중히 옷을 거는 듯한 행동을 몇 번 반복하고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현관문을 여는 목수를 보며 무척 놀랐습니다. 문을 연 그의 모습은 좀 전의 침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와 아내에게 키스를 나누고,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이리저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길에 목수에게 그가 그 나무에게 한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 나무요? 근심을 덜어주는 나무랍니다. 제가 밖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그것은 가족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늘 그 나무에게 제 근심을 하나하나 걸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그 근심을 찾으러 가면 어제만큼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 율거은 클입니다. -

★ 모임행사 ★

성바로 2020 이벤트

• 일시: 4.20(화) 성바로 대구서원 256-4592  
성바로 출판사 도서, 음반, 성물, 카드 등 매월  
20일 20% 할인 행사를 합니다. (타출판사 제외)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 일시: 4.26(월) 20:00 요안나미용학원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꽃동네젊은이철야기도회 10주년 기념 행사

• 일시: 1부 4.30(금) 14:00~5.1(토) 17:00  
• 대상: 젊은이성령봉사자 100명(회비: 1만원)  
• 강사: 싱가포르 제라드씨 부부, 오웅진 신부  
• 접수: myungkkot@hanmail.net(011-490-5345)  
• 일시: 2부 5.1(토) 19:00 모두 참석 가능

★ 피정 ★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 일시: 4.21(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바뇌의 성모 기도회 15주년 춘계 대피정

• 일시: 4.29(목) 09:00~16:00, 장소: 삼덕성당  
• 강사: 남양성지 이상각(F.하비에르)  
• 문의: 삼덕성당 임마콜라파의 집 427-7543

음악이 있는 성서 피정

• 일시: 4.30(금)~5.1(토) 1박2일, 장소: 소보동지  
• 문의: 054-382-0260

★ 성소모임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모임

• 일시: 5.1(토) 16:00 ~ 2(일) 14:00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대상: 고등학생 이상-만 31세 이하 미혼 남성  
• 문의: 010-8353-2323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5.2(일) 11:00 미사~, 장소: 대구 본원  
• 문의: 010-8519-3431 / 313-3431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4.25(일) 10:00~17:00, 장소: 서울 정릉본원  
• 내용: 성소 주일 행사  
• 문의: 016-606-2885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1급 교육과정 개강안내

• 교육기간: 5.10(월)~7.30(금) 총 240시간  
(월, 수 주 2회반/ 월~금 오전반)  
• 접수기간: 4.19(월)~5.4(화) 선착순접수  
• 장소: 구교청 교육원가동3층(255-7222)

가톨릭 복음 선교교육(사랑의선교)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 사랑을 전하는 관계선교교육”  
• 일정: 5.22(토) 10:00~23(일) 17:00  
• 대상: 모든 신자(단체장 포함) 1인 110,000  
• 문의: 정하상교육회관 010-9558-7112

제대 꽃 봉사자를 위한

전례 꽃꽂이 강좌 2학기 수강생 모집

• 개강: 5.11(화), 접수: 3.28(일)~5.3(월)  
• 문의: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010-5501-4042 / 010-5156-8226

대학생 해외봉사 & 어학연수 단체출국모집

• 일정: 1차-6.24(목)~8.20(금) 8주, ~9.17(금) 12주  
2차-8.29(일)~10.25(월) 8주, ~11.22(일) 12주  
• 지역대상: 필리핀, 캐나다, 호주 대학생(연계연수가능)  
•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가톨릭음악원

반주자 양성과정 수강생모집

• 주1회, 능력별 개인지도  
• 문의: 255-4847

정홍규신부님의 영성테라피(5회기)

• 일시: 5.29(토) 10:00~12:00  
• 초등부 음악영상, 미술 테라피(12회기)  
• 일시: 5.8(토)  
• 장소: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 안내 ★

5대리구 가나강좌

• 일시: 4.25(일) 09:50~17:00  
• 장소: 5대리구청(신평성당 내)  
• 신청마감: 4.22(목)-당일접수불가  
• 문의: 054-468-5400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포항지역 공중후원회 미사	4월 19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한티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4월 19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9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4월 20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공소후원회 미사	4월 24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이 원 의 료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협업체, 협당계, 휠체어, 안마기, 뜰, 부항  
변상법(도마니파) 김인숙(아니타)  
경대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성모노인복지센터**

요양등급 받으신 대상자에게  
전문케어 서비스 제공  
요양등급판정 받으실 분 친절상담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모시겠습니다.”  
☎ 답서구: (053)564-1577  
남구: 475-1877 / 수성구: 784-2888

20년 역사의 SHINCHUN 이 운영하는

**DINE ONE**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사 多人園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 탈모  
2F 여드름, 흉터 3F 비만, 미용수술  
손재경 다미아노  
김인주 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치질 · 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범어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 ↔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노동부 지정  
**푸텍스 요리직업 전문학교**  
국비지원(계좌제)  
취업반 창업반 자격증반  
위치 ▶ 지하철 큰고개역 1번출구  
원장 김경희 스테파니아  
Tel : 053)953-9800

강북 **행복을 찾는 치과**  
Happy Dental Clinic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323-2875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